

하느님의 뜻을 따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과 일치하며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 태양은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자연의 움직임은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우리 삶에 남겨질 흔적은 달라집니다. 오늘 미사에서 우리가 갖는 자세도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을 위해 움직이신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삶, 예수님의 뜻을 알아들음으로써 달라지는 모습이 어떨 것인지 짐작과 생각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는 행동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드러내는 잘못된 삶의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고집과 욕심이 하느님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루어질 일은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느님의 어린양이 비취 주는 빛을 받으며 옳은 길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행복을 사도 요한은 묵시록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져서 우리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함으로서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만 간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쓸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올바른 삶의 자세로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가난한 새의 기도

- 이해인님 -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동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주십시오

가진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부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오직 사랑하나로
눈물 속에도 기쁨이 넘쳐날
서원의 삶에
햇살로 넘쳐오는 축복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음이니

내 삶의 하늘에 떠 다니는
흰 구름의 평화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Q 하느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A 교회란 조직에 믿음이 안 간다기보다는,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가지게 될 의무, 계율이 더 신경 쓰이시는 게 아닐는지요? 성서의 표현을 빌면, 교회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밀밭'이지요. 압니다. 교회의 성원이라고 모두 옳은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의 일원이라 하여 교회가 전부 옳지는 않음을, 신자가 모두 옳지는 않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허나, 그렇다 하여 그 조직을 불신하시겠습니까? 신자들은 그걸 알면서도 왜 교회란 이름 아래 있습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썩었다 하여 한국인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민으로서 나라에 대해 가질 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착하게 살라가 교회의 목적이 다? 틀렸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화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느님과 더욱 더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교회, 아니, 종교의 순기능을 이야기할 때 하는 소리가 바로 '착하게 살라'라는 거죠. 하지만 교회가 생각하는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악한 자가 있다면 거기에는 구태여 교회까지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사회적인 입장에서만 보아도 악이란 조직을 흔들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험한 것이니까요. 오죽하면 가장 작은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 하던 시절에도 치안만큼은 챙겼겠습니까? 교회를 두고 '거룩한 창녀'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옳은 말이 예요. 선한 자, 악한 자, 강한 자, 약한 자, 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두를 받아들이니까 말입니다. 교회를 두고 '거룩한 창녀'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옳은 말이에요. 온갖 사람을, 때로는 더럽고 사악한 자들도 받아들이지마는, 악하게 굴러가기 쉬운 게 사람이지마는 그 와중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을지언정, 하느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보살피신다고요. 이 나라가 나라로서의 본분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도 이 나라 국민임을 부정하지 않듯이 신자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그럴 것입니다.

출처:CBCK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쉬는 교우를 위한 기도

저희를 당신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당신 사랑 안에서 친교와 일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초대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신 사랑과 은총에서 멀어진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생활과 기도 속에서 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들이 하루속히 당신 사랑의 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저희가 적극적인 관심과 형제애를 보이게 하소서. 아울러 저희도 당신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당신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 삶과 신앙의 모범을 통해 이들이 신앙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소서.

하늘에 오르신 성모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세 번)

본 당 소 식

◎ 지난 Garage Sale 행사에 수고하신 성모회 회원들과 물품을 기증해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5월 구역모임

워털루 2구역: 30일(토) 오후7시 이은희 자매님덕

워털루 4구역: 23일(토) 오후6시 김현대 형제님덕

브랜포드 구역: 16일(토) 오후6시 장명길 형제님덕

키치너 구역: 30일(토) 오후7시 교육관

◎ 교육관 관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키치너 구역 5월
- ▶캠브리지 구역 6월
- ▶브랜포드 구역 7월
- ▶워털루 1구역 8월
- ▶워털루 2구역 9월
- ▶워털루 3구역 10월
- ▶워털루 4구역 11월

봉사 요일은 각 구역장이 추후 공지합니다.

◎ 로고스회(성경모임)안내

5월 20일(수) 미사 후

◎ 바뇌의 성모 기도회

5월 22일(금) 미사 후

◎ 예비자 교리 공부 안내

6월부터 시작하는 성탄예비자반 모집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포스터가 준비되어있으니 많이 가져가셔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문의 : 박재영 바오로 ☎ 519 747 4981

◎ 인플루엔자(H1N1)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신자들 간에 악수, 주님의 기도 때 손을 잡는 것, 접촉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정중한 인사로 대신하십시오. 성당에 들어올 때 손소독, 친교식사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으십시오.

◎ 주보 및 교우주소록 광고 접수합니다.

광고 접수문의 및 관리자 : 사목회 총무

한택중 막시모 ☎ 519 883 8488 Ext 1

◎ 한글학교 운동회 및 Donation 협조

일시 : 5월 30일 오전 10:30 ~ 오후 4:30

장소 : 키치너 Breithaupt Park

문의 : 송혜란 ☎ 519-893-0587

▣ 본당신부 단상(斷想)

맑은 하늘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에 필립보 네리 성인은 성모 마리아께 꽃을 봉헌하며 성모찬송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2세는 마리아 공경이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 안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모 성월을 위해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일 성모상 앞에서 묵주 기도를 함께 바치거나 성모성월 기도를 바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상을 아름답게 꾸민 가운데 '성모의 밤' 신심행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우리 본당은 여건상 올 해 ‘성모의 밤’ 신심행사를 갖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각 가정에서 성모님의 삶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모범을 본받아야 합니다.

참, 성모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라고 해야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하면 안 됩니다. ^^ ☺

2009년 5월 10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622.00
교 무 금 : \$ 0
감 사 금 : \$ 0
성전건립 : \$ 0
소 성 당 : \$ 0
합 계 : \$ 622.00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 lucasmuse@korea.com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09-22호

2009. 5. 17.

부활 제 6 주일 미사 전례

해 설 김 근효 차주 해설 신 계연

성 가

입 당 (237) 주 예수 어머니
봉 헌 (221) 받아주소서
성 체 (173) 사랑의 주여 오소서
퇴 장 (414)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화 답 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머물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독	서
5월 17일	백옥현	박인선
5월 24일	윤명원	윤명희
5월 31일	노동원	노성은

	봉	헌
5월 17일	김동규	김은옥
5월 24일	백옥현	박인선
5월 31일	윤명원	윤명희

	복	사
5월 17일	구하람	강수현
5월 24일	류지흥	호동
5월 31일	최예슬	이수민

	친	교
5월 17일	영광팀	5월 24일 장미팀
5월 31일	백합팀	6월 7일 신비팀